천국의 쓸모없음

(마12:43-50)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의 쓸모없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이 쓸모없다, 이 말은 당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 여러분은 천국을 쓰십니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직장생활 할 때에 하늘나라를 쓰고 계십니까? 안 써요.
증권시장에서 증권투자 하실 때 여러분은 천국을 쓰십니까? 안 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공부할 때 천국 쓰십니까? 안 써요.
동창들 모임에서 천국 안 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천국은 쓸모없고 언제 쓸모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안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누구나 다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쓸모없음'입니다.

이 쓸모없음과 관계 지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도가의 스승인 장자가 무용지용(無用之用)이라는 말을 자기의 가르침 곳곳에서 반복합니다.
쓸모가 없다는 무용(無用), 그 쓸모없음에 쓸모 있음(用), 무용지용(無用之用).
이 가르침 속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혜자라고 하는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장자의 가르침을 들은 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은 다 이 세상의 삶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자가 말합니다.
'쓸데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참으로 쓸모 있음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뒤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 땅은 이를 바 없이 넓고 넓지만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쓰는 땅의 면적은 발바닥이 닿는 면적뿐이다, 걸음을 걸을 때 쓰는(用) 면은 발바닥 면적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걸음 걸을 때 쓸모없다고 발바닥 면적만큼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의 땅을 땅 속의 황천까지 다 파서 없앤다고 하면 쓸모 있는 발바닥 면적만큼의 땅인들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걸음을 걸을 때 쓸모없어 보이는 여분의 땅들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알아야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준 겁니다.
이것은 장자의 외물편(外物篇)에 나오는 예(例)이고, 장자의 산목편(山木篇)에는 또 무용지용(無用之用)의 도를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장자가 산길을 걷다가 큰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옆에 나무꾼이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장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큰 나무를 벨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쉬기만 합니까?'
이때 나무꾼이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기둥으로도 쓸 수 없고, 가구로도 땔감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장자가 말하기를 ‘이 나무가 삶의 현실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오래 이 자리에서 잎이 무성하고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있었고 오고가는 동물과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쓸모가 없을 때 그 쓸모없음이 곧 쓸모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서 쓸모가 있어서 베어져 나갔다면 그 길거리에서 지나는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쓸모 있는 나무는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장자가 얘기하기를,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해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쓸모 있음으로 해서 단명하게 되고, 삶에 평안이 없고 깨지고 부서진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뜻의 속담이 있어요.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나무가 굽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버려두는데 그 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쓸모가 있는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천국은 정말 죽기 전까지는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 면적만큼의 땅만 쓸모가 있지만, 그 발바닥 면적 이외의 땅을 다 파서 없애버리면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가 시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쓸모없는 이 천국을 내 마음이 가득 담고 있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강이 없고 구원이 없고 행복이 주어질 수 없고 기쁨이 누려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돈을 버는 현장에서 천국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쓸모없는 천국을 내 마음이 담기 전에는 절대로 돈 버는 현장에서 돈이 벌리건 안 벌리건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없고, 행복한 마음을 이미 갖고 돈 버는 자리에서 돈 버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이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직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못해서 혹시나 하고 다시 돌아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처가 좋기 때문에 혼자 머물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친구 귀신 일곱을 데리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거하게 됨으로써 처음 귀신이 머물 때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의 형편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앞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악한 세대의 형편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의 연관성 하에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바알 신, 아세라 목상, 아스다롯, 몰록 신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심지어는 불에 살라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돌아오게 되며,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선각자에 의해서 정화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유대지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소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우상숭배를 따라하지 않고 있는 지금이, 깨끗이 가나안 7족의 우상숭배가 청소되었지만,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일곱 배로 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대의 제사장 이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있

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날마다, 절기마다, 아주 풍성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형태가 근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일곱 귀신 들려있다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천미네이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이 세분화되어서 삶 전체에 스며들어서 준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이 지상에서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지상에서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의 삶에 쓸모 있도록 변형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이 삶의 현실에 유용한 가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더 이상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아무리 가리키고 간판으로써 기적을 일으켜도 그 간판을 보고 그 누구도 천국을 향할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로 돼버렸어요, 일곱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사건과 부활사건을 계기로 내 마음에 이 땅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천국을 마음에 채우고,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끌어당겨서 그 천국 맛을 보고, 그 천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에 천국을 그리워함으로 사모함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이유가 이 땅에서 삶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한, 믿지 않을 때보다도 일곱 배로 악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되게 믿을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상태에서 이 땅에 마음이 붙어서 땅의 것을 먹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부터 일곱 배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
발바닥 면적만큼의 땅만 필요합니다마는 발바닥 면적 이외의 땅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바닥만

큼 믿는 그 디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평강과 행복과 참된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천국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발바닥 면적만큼은 옆의 땅이 지탱해줍니다.
이 땅에서의 내 일생은 천국이 지탱해줍니다.
내 마음이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에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천국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가득 차지지 않고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느낄 수 없게 되는 한 이 땅의 삶은 지옥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 천국의 무용지용,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의 무용함, 천국이 이 땅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천국을 마음에 담기 전까지는 참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데 쓸모없고, 건강에 쓸모없고, 자식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데 쓸모없다고 하는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이 지상의 삶조차도 부수적으로 지탱될 수 있습니다.
평강에 의해 지탱되고 기쁨과 행복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 속에 쓸모없는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에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러면 이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차이를 비교해보면 뚜렷이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속에는 세상의 성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돼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우상이 다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분화시킨 율법조항들을 잘 지켜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 바깥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편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잘돼보겠다고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싶어 하는 여망을 이루려는 방편으로 밖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일곱 귀신 들린 상태로 비유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 땅의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이는 천국을 갖습니다.
천국을 그리워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천국을 느끼면서 천국에서 마음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천국으로 채워집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뭐지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세상이 차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린 자들, 그래서 마음이 오직 하늘을 향하고 천국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마음속으로 흐릅니다.
이 마음속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곧 피라는 거예요.
영적인 혈연관계를 한 핏줄로 만들어주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뜻이 마음 바깥에 제시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흐르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루고 싶은 것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지켜나갑니다,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기계발서' '자녀교육 이렇게 하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 땅에서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율법입니다.
5천만 원으로 3년 만에 3억 만드는 재테크 방법, 이게 다 율법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따라가고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바리새인이 다른 것은 구약 때부터 제시된 율법을 마음속에, 보통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삼았다는 게 다를 뿐이지요.
그러므로 서점에 나가면 온통 율법서 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율법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사는 것, 소원하는 것이 죽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원하는 게 죽으면 하나님나라 자체가 지금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천국을 지금 내 마음속에 채워 넣어주십니다.
이때 이 사람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움직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이미 천국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천국으로 마음이 성공해버렸고 마음이 만족해 버렸습니다.
이때 천국으로 만족한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피처럼 흐를 때 이것은 성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내가 이렇게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심령상태가 되게끔 한 천국이 들어왔고, 그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면서 하나님아버지의 뜻이 세상에서 잘살기 위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내 바깥에서 주어지는 법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 내 마음에 흐르는 피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의 형제자매가 됩니까?
이 땅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무용의 천국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용의 천국을 가득히 채울 때,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천국에 입각한 평강의 삶이 되고, 천국에 지탱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라는 표적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왜 표적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 쓸모없는 자가 될 때에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천국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쓸모없는 나무가 산에 남아있듯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로서 아무 쓸모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알 때에 천국에 서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쓸모없어 보이는 천국을 가지려면 내가 이 땅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 죽는 자가 되면 천국의 아버지 보좌 앞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천국에 심겨진 나무에게만이 천국의 하나님아버지의 뜻이 자양분처럼 빨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직장생활 하셔야 되지요? 오늘도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천국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먼저 그 직장과 모임과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이 전혀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자로 인정하시고 오직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천국만을 갖게 해달라고, -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도 않고 성공을 할 수도 없고 -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 쓸모없을 때, 그 쓸모없는 천국을 갖겠다고 이 땅에서 쓸모없는 짓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로서 직장에 모임에 가보세요!
그곳에서 그곳을 향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열매맺게 되는 현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쓸모없음, 여기에 구원의 비결이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쓸모없음을 알고 쓸모없는 천국을 갖는 자에게 오직 주님의 혈연관계의 권속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하나님!
삶의 현장 어디에도 아버지가 보좌를 펼치고 앉아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편에 서계신 그 천국이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이 쓸모없는 천국을 마음에 가짐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천국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